

# 天樞穴에 對한 文獻的 考察

李鍾賢 · 成樂箕\*

## I. 緒論

經絡은 人體內 氣血運行的 通路로 “經”은 徑路의 意義가 있고 縱行의 大幹線을 말하고, “絡”은 羅網의 意義가 있으며 經의 分枝이고 橫行의 小路線이고 羅網經絡과 같고 全身에 퍼져있는 것이다.

이 經絡은 表裏, 上下를 溝通하고 臟腑 器官을 聯系하는 獨特한 系統인 것이다. 足陽明胃經은 從頭走足하며 脈長이 8尺에 이르며 多氣多血한 經絡으로 太陽之脈인 睛明穴에서 起始하여 厲兌穴에 終止하게 된다.<sup>1)</sup>

天樞穴은 足陽明胃經의 25번째의 經穴로 天樞穴은 “足陽明經脈氣所發”<sup>1,2,3)</sup>이라 하여 足陽明胃經의 大腸의 募穴이 된다. 1,4,5,6,7,8)

《黃帝內經》<sup>9,10)</sup>은 天樞의 穴位 및 取穴, 刺鍼深度 및 留鍼時間에 對해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天樞의 概念에 對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나, 《鍼灸甲乙經》<sup>3)</sup>에 이르러 異名, 穴位와 取穴을 설명하고 있는데 天樞는 大腸의 募로써 一名 “長溪, 谷門”이라 하였으며 “去肓俞一寸五分 臍兩旁二寸陷者中”이라고 말하고 있다.

足陽明脈氣의 發<sup>1,2,3)</sup>하는 곳으로 “刺入五分과 留七呼, 灸五壯”이라 했으며 主治症은 “女子胞中痛 月水不以時休止 腹脹 腸鳴 氣上衝胸 不能久立 腹中痛 濯濯 冬日重感於寒則泄 當臍而痛 腸胃間遊氣切痛 食不化 不嗜食 身腫 俠臍急 氣疝 噦嘔 面腫 奔豚陰疝 氣疝 臍疝 繞臍而痛 時上衝心痛振 寒熱甚狂言”이라 하였다.

《鍼灸甲乙經》以後의 文獻들에서 그

內容이 약간씩 상이한 점이 있었다. 이에 著者는 臨床에서 多用하고 있는 鍼灸治療穴中의 하나인 天樞穴에 對해 穴位, 取穴, 刺鍼深度, 留鍼時間에 對하여 《黃帝內經》이래 歷代의 文獻을 考察해서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文獻의 資料 및 調查方法

#### 1) 資料

- (1) 《素問》
- (2) 《靈樞》
- (3) 《鍼灸甲乙經》
- (4) 《備急千金要方》
- (5) 《外臺秘要》
- (6) 《針灸資生經》
- (7) 《扁鵲神應鍼灸玉龍經》
- (8) 《十四經發揮》
- (9) 《鍼灸聚英》
- (10) 《醫學入門》
- (11) 《鍼灸大成》
- (12) 《類經圖翼》
- (13) 《鍼方六集》
- (14) 《神灸經綸》
- (15) 《醫宗金鑒》
- (16) 《鍼灸穴名解》
- (17) 《中國鍼灸歌訣(周志杰)》
- (18) 《明簡 實用鍼灸學》
- (19) 《精解鍼灸學》
- (20) 《最新鍼灸學(上海)》
- (21) 《最新鍼灸學(成輔社)》
- (22) 《鍼灸治療學(金容基)》
- (23) 《鍼灸學(上海)》
- (24) 《鍼灸學(北京)》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 (25) 《經穴學叢書》
- (26) 《實用鍼灸學(呂長松)》
- (27) 《鍼灸大辭典》
- (28) 《中國鍼灸大全》
- (29) 《鍼灸經穴辭典》
- (30) 《簡明中國鍼灸》
- (31) 《新編鍼灸治療手冊》
- (32) 《鍼灸學(上)》

2) 方法

歷代 文獻을 통하여 《黃帝內經》이후 現代文獻까지 32種의 文獻을 考察하여 比較 檢討하였다.

2. 調查內容

1) 《素問》

帝曰：願聞其用也。岐伯曰：言天者，求之本，言地者，求之位，言人者，求之氣交。帝曰：何謂氣交。岐伯曰：上下之位，氣交之中，人之居也。故曰：天樞之上，天氣主之，天樞之下，地氣主之，氣交之分，人氣從之，萬物由之，此之謂也。

帝曰：善。氣之上下何謂也。岐伯曰：身半以上，其氣三矣，天之分也，天氣主之。身半以下，其氣三矣，地之分也，地氣主之。以名命氣，以氣命處，而言其病。半，所謂天樞也。故上勝而下俱病者，以地名之，下勝而上俱病者，以天名之，所謂勝至，報氣屈伏而未發也。復至則不以天地異名，皆如復氣爲法也。

2) 《靈樞》

膈舒以下至天樞，長八寸，過即胃大，不及即胃小。天樞以下至橫骨，長六寸半，過即迴腸廣長，不滿即狹短。

3) 《鍼灸甲乙經》

大腸募也，一名長溪，一名谷門，去背俞一寸五分，俠臍兩旁各二寸陷者中，足陽明脈氣所發，刺入五分，留七呼，灸五壯。

女子胞中痛 月水不以時休止 腹脹 腸鳴 氣上衝胸 不能久立 腹中痛 濯濯 冬日重感於寒則泄 當臍而痛 腸胃間遊氣切痛 食不化 不嗜食 身腫 俠臍急 氣疝 噦嘔 面腫 奔豚陰疝 氣疝 臍疝 繞臍而痛 時上衝 心瘡振 寒熱甚狂言。

4) 《備急千金要方》

去背輸一寸半 直臍傍二寸 冬月重感於寒則泄當臍痛腸胃間遊氣切痛奔豚脹疝瘡振寒熱盛狂言氣疝歐腹中盡痛腹脹腸鳴氣上衝胸。

5) 《外臺秘要》

一名長溪 一名穀門 去背俞一寸半 在俠臍二寸陷者中 足陽明脈氣所發 灸三壯 主臍疝繞臍而痛時 上衝心共子胞絡中 痛月水不以時休止 腹脹腸鳴 氣上衝胸不能久立 腹中痛濯濯 冬月重感於寒則瀉當 臍而痛腸胃間遊氣切痛 食不和 不嗜食 身重夾臍急 瘡振 寒熱盛狂言 脾脹四肢重不能 勝氣疝 煩嘔面腫 大腸脹。

6) 《針灸資生經》

一名長溪 一名穀門 大腸之募 去背俞一寸半 夾臍傍各二寸陷中 灸五壯 鍼五分 留十呼。

天樞主冬月重感於寒則泄 當臍痛 腸胃間游氣切痛 若心腹痛而後泄 此寒氣客於腸間云云 腹大堅 泄利食不化 不嗜食 夾臍痛 月事不時血結成塊腸鳴腹痛 氣上衝胸胞中痛惡血月水不以時休止 臍疝繞臍痛 時止氣疝煩 嘔面腫 賁豚 婦人腹痛 瘡振寒熱甚狂言 腹痛濯濯 身腫脹疝。

7) 《扁鵲神應鍼灸玉龍經》

在臍兩傍各二寸。鍼一寸，灸五十壯，宜補。應脾俞穴。

8) 《十四經發揮》

在挾臍二寸。

## 9) 《鍼灸聚英》

去肱俞半寸，俠臍中兩傍各二寸陷中，大腸之募，《銅人》灸五壯，鍼五分，留什呼，《千金》云：魂魄之舍不可鍼，“素注”鍼五分，留七呼。主奔豚，急泄，脹疝，赤白痢水痢不止，食不下，水腫，腹脹，腸鳴，上氣衝胸，不能久立，久積冷氣，繞臍切痛，時上衝心，煩滿嘔吐，霍亂，冬月感寒泄痢，瘧寒熱狂言，傷寒飲水過多，腹脹氣喘，婦人女子癥瘕，血結成塊，漏下赤白，月事不時。

## 10) 《醫學入門》

平臍傍二寸 鍼入五分 灸百壯 主面浮腫 唾血 吐血 狂言 嘔吐 霍亂 泄痢 食不和 久積冷氣 繞臍切痛 衝心腹痛 腹脹 腸胃遊氣切痛 女子漏下赤白。

## 11) 《鍼灸大成》

去肱俞一寸五分，俠臍中兩傍各二寸陷中，乃大腸之募。《銅人》灸五壯，《濟生拔萃》灸百壯，鍼五分，留什呼，《千金》云，魂魄之舍，不可鍼，《素注》鍼五分，留七呼，主奔豚，急泄，脹疝，赤白痢水痢不止，食不下，水腫，腹脹，腸鳴，上氣衝胸，不能久立，久積冷氣，繞臍切痛，時上衝心，煩滿嘔吐，霍亂，冬月感寒泄痢，瘧寒熱狂言，傷寒飲水過多，腹脹氣喘，婦人女子癥瘕，血結成塊，漏下赤白，月事不時。

## 12) 《類經圖翼》

一名長溪 一名谷門 夾臍旁二寸 去肱俞一寸五分陷者中 大腸募也 刺五分 留七呼 灸五壯 拔萃云百壯 千金云 魂魄之舍不可鍼 孕婦不可灸。

主治奔泄瀉 赤白痢水痢不止 食不和 水腫 腹脹 腸鳴 上氣衝胸不能久立 久積冷氣 繞臍切痛 時上衝心 煩滿嘔吐霍亂 寒虐 不嗜食 身黃瘦 女人癥瘕血絡成塊 漏下月水不調 淋濁帶下。

千金云 久冷及婦人癥瘕 小便不通 腸鳴 瀉痢 繞臍絞痛 灸百壯三報之 又云吐血腹痛雷鳴 灸百壯 又云狂言恍惚 灸百壯 又云霍亂先下痢 久二七壯 不瘥更二七壯 男左女右。

標幽賦云 治虛損。

百證賻云 兼水泉 治月潮違限。

一傳治來膝疼痛 腹中塊 久瀉不止 虛損勞弱 可灸二十一壯。

## 13) 《鍼方六集》

一名長溪，一名谷門。去肱俞一寸五分，挾臍兩旁各二寸，大腸募也。《鍼經》：刺入五分，留七呼；灸五壯。竇氏：鍼入二寸半，灸二十壯。

## 14) 《神灸經綸》

一名長溪，一名谷門。從滑肉門下一寸，挾臍旁二寸許陷中，去肱俞一寸五分。《千金》云，魂魄之舍，不可鍼。孕婦不可灸。久冷痛癰可灸百壯。

## 15) 《醫宗金鑒》

天樞主灸脾胃傷，脾瀉痢疾甚相當，兼灸鼓腸癥瘕病，艾火多加病必康。

## 16) 《鍼灸穴名解》

天，為氣化運行自然之序，如天生，天殺，天年，天然諸義；樞，為致動之機。

本穴內應橫結腸屈曲折之端，其功能長於助使膈下臟器運行加速，即補助陽中水穀氣化吸收水分，排出乾矢，增益蠕動之力，因名“天樞”。又以大小腸連結管道甚長，故別名“長溪”，“長谷”，又名“谷門”。

我國古代星家以北斗第一星為天樞，主持天際各星運行之律，養生家取法此意，作臍輪周轉，以人意法天道，喻本穴猶天之中樞，而名之曰“天樞”。

《鬼谷子》：“人君有天樞，生長成藏”。陶宏景註云：“生長成長，天道之行也。”即以人

事合天道也。天道即大體自然變化之進展現象，雖曰人文進化，其主導皆本於自然，醫家，道家自不個外。

本穴在治療上，促使胸腹之氣上下構通，以促新陳代謝，即順應物性之自然也。註揆天樞二字，即天道自然行運之代名詞也。

按摩，以拇食兩指揉按左右兩天樞，只在穴位上施轉，可通矢氣，利大便，此其驗也。按通矢氣行大便，亦即人體自然行運規律。

#### 17) 《中國鍼灸歌訣(周志杰)》

任脈臍中是神闕，神闕之旁二寸接，調理胃腸取天樞，行氣活血金鍼涉，腹痛腹脹與便秘，泄瀉腸鳴并痢疾，水腫症瘰闌尾炎，消化不良痛經刺，繞臍切痛不妊症，月經不調寄生蟲，急慢之分胃腸炎，以証施術效顯靈，仰臥臍旁二寸取，鍼入肌肉寸五施，施灸七壯至十五，變証着鍼療效奇。

#### 18) 《明簡 實用鍼灸學》

【穴位】臍旁橫開二寸處

【主治】腹痛，吐瀉，痢疾，腹脹水腫，便秘，倒經

【刺鍼】仰臥取之，直鍼五分至一寸。

【艾灸】灸十壯，孕婦忌鍼灸。

#### 19) 《精解鍼灸學》

【穴位】神闕穴 兩傍各 2寸。

【主治】急慢性胃炎，急慢性腸炎，子宮內膜炎，腹脹，泄瀉，月經不調，腹痛，便秘，白帶多。

【刺鍼】5mm。

【艾灸】灸 3~7壯。

#### 20) 《最新鍼灸學(上海)》

【穴位】臍旁開二寸。

【主治】急慢性胃炎，急慢性腸炎，菌痢，腸麻痺，腹膜炎，腸道蛔蟲症，子宮內膜炎，便秘，腰痛。

【刺鍼】直刺 1.5~2.5寸。

【艾灸】5~7壯。

#### 21) 《最新鍼灸學(成輔社)》

【穴位】臍兩傍 各 2寸。

【主治】急慢性胃炎，急慢性腸炎，子宮內膜炎，菌痢，腸麻痺，腹膜炎，腸蛔蟲症，便秘，腰痛。

【刺鍼】直刺 1.5~2.5寸。

【艾灸】5~7壯。

#### 22) 《鍼灸治療學(金容基)》

【穴位】臍(神闕)旁 2寸。

【主治】腸疾患(腹痛，腹瀉，痢疾，便秘，消化障礙)，婦人病(月經不順，帶下，痛經)，久瀉不止，大便數，急慢性胃腸炎，腸炎，子宮內膜炎。

【刺鍼】1~1.5寸。

【艾灸】7~15壯。(但妊婦不可灸)

#### 23) 《鍼灸學(上海)》

【穴位】臍旁二寸，腹直肌中，分布第十四肋間神經支。內部為小腸。

【主治】腸疾患(腹痛，腹瀉，痢疾，消化障礙)，婦女病(月經不調，帶下，痛經)

【刺鍼】直刺 1~1.5寸。

#### 24) 《鍼灸學(北京)》

【穴位】在神闕穴 旁開 2寸處。

【主治】繞臍腹痛，腹脹，腸鳴，痢疾，泄瀉，便秘，腸痛，痛經，月經不調，癥瘕。

【刺鍼】直刺 0.8~1.2寸。

【艾灸】可灸。

#### 25) 《經穴學叢書》

【穴位】臍旁 兩方 2寸。

【主治】急慢性胃炎，急慢性腸炎，菌痢，腸麻痺，腹膜炎，腸蛔蟲症，子宮內膜炎，便秘，腰痛。

【刺鍼】直刺 1.5~2.5寸。

【艾灸】5~7壯。

## 26) 《實用鍼灸學(呂長松)》

【穴位】 臍旁開 2寸.

【主治】 急慢性胃炎, 急慢性腸炎, 菌痢, 腸麻痺, 腹膜炎, 腸道蛔蟲症, 子宮內膜炎, 便秘, 腰痛.

【刺鍼】 直刺 深 1.5~2.5寸.

【艾灸】 灸 5~7壯, 溫灸 10~20分鐘.

## 27) 《鍼灸大辭典》

【穴位】 臍旁二寸.

【主治】 腹脹腸鳴, 繞臍痛, 便秘, 泄瀉, 痢疾, 月經不調.

【刺鍼】 直刺 一至一寸半.

【艾灸】 7~8壯, 孕婦不可灸.

## 28) 《中國鍼灸大全》

【穴位】 臍旁2寸處取之.

【主治】 腹脹腸鳴, 繞臍痛, 便秘, 泄瀉, 痢疾, 月經不調, 癥瘕, 闌尾炎, 腸道蛔蟲症, 急性腸梗阻, 急性胰腺炎, 急慢性胃炎, 急慢性腸炎, 子宮內膜炎.

【刺鍼】 直刺 1~1.5寸.

【艾灸】 7~15壯.

## 29) 《鍼灸經穴辭典》

【穴位】 臍의 側 2寸.

【主治】 腹痛, 下痢, 赤痢, 便秘, 腹部膨滿, 浮腫, 月經不順.

【刺鍼】 直刺 0.7~1寸.

【艾灸】 灸可

## 30) 《簡明中國鍼灸》

【穴位】 臍旁 2寸.

【主治】 腹瀉, 腹痛, 便秘, 月經不調.

【刺鍼】 直刺 1.5寸.

【艾灸】 艾條灸, 孕婦不可灸.

## 31) 《新編鍼灸治療手冊》

【穴位】 臍旁 2寸.

【主治】 腸疾患, 水腫.

【刺鍼】 1~1.5寸.

## 32) 《鍼灸學(上)》

【穴位】 俠臍兩傍各 2寸.

【主治】 急慢性胃炎, 腸炎, 腹脹, 腹痛, 月經不調, 便秘, 泄瀉, 嘔吐, 腸鳴, 繞臍痛, 水腫, 子宮內膜炎, 黃疸, 經閉, 婦人癥瘕, 產後腹痛, 高血壓, 煩滿, 腰痛, 蟲垂炎, 霍亂下痢, 狂言恍惚, 腹中氣塊久泄不止.

【刺鍼】 直刺 0.5~1寸, 斜刺 0.8~1.5寸.

【艾灸】 肉灸 5~7壯, 溫灸 10~20分.

## III. 考察

天樞穴은 足陽明脈氣가 所發<sup>1,2,3)</sup>하는 곳으로 足陽明胃經의 大腸의 募穴이 된다.

天樞의 “天”은 上部를 指摘하였으며 “樞”는 樞軸, 核心의 意味이다.

옛날은 臍를 境界로 腹部를 上下로 구분, 臍에서 上은 天에 對應시켜서 天에 屬한다고 하고 臍에서 下를 地에 對應시켜서 地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이 穴은 臍의 旁에 있고 胃腸의 氣의 機能을 左右하는 要點인 것으로써 天樞라 命名된 것이다.<sup>9)</sup>

天樞의 異名은 《鍼灸學(上)》<sup>1)</sup>에서 長溪, 長谿, 谷門, 長谷, 循際, 循元, 補元, 穀門이라 하며, 《鍼灸甲乙經》等<sup>2,3,4,7,10)</sup>에서는 長溪, 谷門, 長谷이라 하였으며, 《鍼灸穴名解》<sup>31)</sup>에서는 長溪, 谷門, 長谷이라 稱하였다. 이에 天樞穴의 異名은 주로 長溪, 谷門이 주로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天樞穴의 穴位는 《鍼灸甲乙經》等<sup>2,3,4,5,6,7,8,11,15)</sup>에서는 “去臍一寸五分 臍兩旁二寸陷者中”이라 하였으며, 《扁鵲神

應鍼灸玉龍經》等<sup>12,13,14,16,17,18,19,20,21,22,23,24,25,26,27</sup>)은 “在臍兩傍各二寸”이라 하였고, 《鍼灸歌訣》等<sup>28,29,30</sup>)은 天樞穴의 穴位를 “任脈臍中是神闕, 神闕之旁二寸按”이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天樞穴의 穴位에 對해서는 큰 차이 없이 臍旁二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天樞穴의 取穴은 《實用鍼灸學》等<sup>16,28</sup>)에서 “仰臥取之”라 하여 記錄하고 있다.

天樞穴의 刺鍼深度는 《鍼灸甲乙經》等<sup>3,4,7,14</sup>)에서는 五分이라 하였으며, 《扁鵲神應鍼灸玉龍經》<sup>12</sup>)에서는 一寸이라 하였으며, 《明簡實用鍼灸學》<sup>16</sup>)에서는 5分에서 1寸이라 하였으며, 《精解鍼灸學》<sup>29</sup>)에서는 5mm라 하였으며, 《最新鍼灸學(上海)》等<sup>17,18,21</sup>)에서는 直刺 1.5~2.5寸이라 하였으며, 《鍼灸治療學(金容基)》等<sup>19,20,22,23,26</sup>)에서는 1~1.5寸이라 하였으며, 《鍼灸學(北京)》<sup>30</sup>)은 0.8~1.2寸이라 하였으며, 《鍼灸經穴辭典》<sup>24</sup>)은 0.7~1寸이라 하였으며, 《簡明中國鍼灸》<sup>25</sup>)에서는 1.5寸을 《鍼灸學(上)》<sup>1</sup>)는 直刺 0.5~1寸, 斜刺 0.8~1.5寸이라 하였다.

以上에서 天樞穴의 刺鍼深度는 0.5~1.5寸이 適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鍼灸學(上)》<sup>1</sup>)에서는 直刺와 斜刺로 구분하였는데 아마 解剖學의인 部位를 考慮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天樞穴의 留鍼時間은 《鍼灸甲乙經》等<sup>3,7</sup>)에서는 留七呼라 하였으며, 《鍼灸資生經》<sup>4</sup>)에서는 留十呼라 하였다.

여기에서 呼의 概念의 一呼를 經氣가 經脈을 따라 一周하는데 소요되는 時間으로 一呼는 約 5分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天樞穴의 留鍼時間은 大略 7呼 내지 10呼가 適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天樞穴의 灸法은 크게 禁灸와 灸可能으로 兩分되어 있다.

禁灸라 되어 있는 文獻을 살펴보면 《醫宗金鑑》<sup>32</sup>)에서는 “天樞主灸脾胃傷, 脾瀉痢疾甚相當, 兼灸鼓腸癥瘕病, 艾火多加病必康”이라 하여 禁灸와 灸의 不作用을 말하였고, 《明簡實用鍼灸學》等<sup>16,22,23,25</sup>)에서는 灸는 可能하나 孕婦에게는 鍼灸를 禁하였다. 灸可能의 文獻으로는 《鍼灸甲乙經》等<sup>3,4,7</sup>)에서는 “灸五壯”을 말하였고, 《外臺秘要》<sup>2</sup>)에서는 “灸三壯”이라 하였고, 《扁鵲神應鍼灸玉龍經》<sup>12</sup>)에서는 “灸五壯”이라 하였고, 《醫學入門》<sup>14</sup>)에서는 “灸百壯”이라 하였고, 《明簡實用鍼灸學》<sup>16</sup>)에서는 “灸十壯”을, 《精解鍼灸學》<sup>29</sup>)에서는 “灸 3~5壯”을, 《最新鍼灸學(上海)》等<sup>17,18,21</sup>)에서는 “灸 5~7壯”을, 《鍼灸治療學》<sup>22</sup>)에서는 “灸 7~8壯”을, 《中國鍼灸大全》<sup>23</sup>)에서는 “灸 7~15壯”을 《鍼灸學(北京)》<sup>24,25,30</sup>)에서는 “可灸”를 말하였다.

以上에서 禁灸와 灸可能의 文獻을 살펴보면 大體的으로 灸는 可能하나 妊婦에게는 大體的으로 禁灸라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妊娠한 女子의 胎兒가 害를 받을까 하는 우려가 아닌가 생각한다.

天樞穴의 穴性은 《鍼灸學(上)》<sup>1</sup>)에서는 “疏調大腸, 調神和胃, 理氣健脾, 扶土化濕, 和營調經, 利己消滯”라 하였으며, 《經穴學叢書》等<sup>18,21,27</sup>)에서는 “疏調臟腑, 理氣消滯”라 하였으며, 《鍼灸經穴辭典》<sup>24</sup>)에서는 “調理腸胃, 理氣和營”이라 하였다.

以上에서 天樞穴의 穴性이 “疏調大腸, 調神和胃, 理氣健脾, 扶土化濕, 和營調經, 理氣消滯 疏調臟腑 調理腸胃, 理氣和營”이라 한 것으로 보아 天樞穴은 消化器 疾患(胃腸)에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약간의 婦人科 疾患에도 應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天樞穴의 主治症을 分類하여 보면 消化器 疾患과 婦人科 疾患 및 泌尿生殖器 疾

患에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運動器 疾患, 感染性 및 傷寒性 疾患, 循環期 疾患, 神經精神科 疾患 等に 使用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消化器 疾患中에서 急慢性腸炎, 腹脹, 便秘, 泄瀉, 嘔吐, 腸鳴, 霍亂, 食不和, 月經不調, 經閉, 血結成塊, 痛經, 倒經, 不妊, 帶下, 癥瘕, 水腫, 小便不通, 脹疝, 奔豚, 氣疝, 臍疝, 陰疝, 腸疝 等の 疾患에 使用함을 알 수 있었다.

7. 天樞穴의 穴性이 疏調大腸, 調中和胃, 理氣健脾, 扶土化濕, 和營調經, 理氣消滯, 疏調臟腑, 調理脾胃, 理氣和營으로 보아 消化器 疾患, 특히 胃와 腸疾患에, 또한 婦人科 疾患 等に 應用이 可能할 것으로 思料된다.

經絡的으로 考察하여 보면 天樞穴이 屬해있는 足陽明胃經의 經絡流注 部位 或은 胃經과 聯關된 疾患을 治療하는데 使用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 IV. 結 論

天樞穴에 對해 《黃帝內經》以來 歷代의 文獻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天樞穴의 穴位는 臍旁二寸임을 알 수 있었다.
2. 天樞穴의 取穴은 仰臥取之로 나타났다.
3. 天樞穴의 刺鍼深度는 5分~1.5寸이 適當하며, 留鍼時間은 七呼내지 十呼로 나타났다.
4. 天樞穴에 對한 灸法은 大體的으로 灸는 可能하나 妊婦에게는 禁灸로 나타났다.

5. 天樞穴은 疾患別로는 消化器 疾患과 婦人科 疾患 및 泌尿生殖器 疾患에 多用됨을 알 수 있었다.

6. 天樞穴의 主治症은 急慢性胃炎, 泄瀉, 便秘, 霍亂, 嘔吐, 赤白痢, 食不和, 月經不調, 經閉, 血結成塊, 痛經, 倒經, 不妊, 帶下, 癥瘕, 水腫, 小便不通, 脹疝, 奔豚, 氣疝, 臍疝, 陰疝, 腸疝 等の 疾患에 使用함을 알 수 있었다.

7. 天樞穴의 穴性이 疏調大腸, 調中和胃, 理氣健脾, 扶土化濕, 和營調經, 理氣消滯, 疏調臟腑, 調理脾胃, 理氣和營으로 보아 消化器 疾患, 특히 胃와 腸疾患에, 또한 婦人科 疾患 等に 應用이 可能할 것으로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 1) 崔容泰 外: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91. pp.45, 343, 349, 371~372.
- 2) 王燾: 外臺秘要,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7, p.1099.
- 3) 皇甫謐: 鍼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12.
- 4) 王執中: 鍼灸資生經, 서울, 一中社, 1991. 〈一卷〉 p.52, 〈三卷〉 p.28, 35, 45, 46, 〈四卷〉 p.48, 49, 51, 〈五卷〉 p.1 〈七卷〉 p.31.
- 5) 高武: 鍼灸聚英, 서울, 東南出版社, 1985. p.30.
- 6)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台北, 啓業書局, 1987. pp.761~762.
- 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122~123.
- 8) 吳崑: 鍼方六集,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2. p.17.
- 9) 王琦 外: 素問今釋, 貴州, 人民出版社, 1981, p.326, 436.
- 10) 河北中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

京，人民衛生出版社，1982. pp.325~326.

11) 孫思邈：備急千金要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p.510, 538~540, 542.

12) 王國端：扁鵲神應鍼灸玉龍經，合肥，安徽科學技術出版社，1992. pp.19~20.

13) 本間祥白，吳家鏡 譯：圖解十四經發揮，台北，正言出版社，1965. p.55.

14) 李槲：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94. p.153.

15) 吳亦鼎：神灸經綸，合肥，安徽科學技術出版社，1992. p.45.

16) 唐明山：明簡實用鍼灸學，台北，施風出版社，1963. pp.57~58.

17) 上海中醫學院：最新鍼灸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77. p.145.

18) 金賢濟 外：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1983. pp.193~194.

19) 金容基：鍼灸治療學，서울，書苑堂，1983. pp.297~298.

20) 上海中醫學院：鍼灸學，香港，商務印書館香港分館，1985. pp.148~149.

21) 安榮基：經穴學叢書，서울，成輔社，1986. pp.176~177.

22) 程寶書：鍼灸大辭典，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1988. p.259.

23) 王雪苔：中國鍼灸大全，河南，河南科學技術出版社，1988. p.267~268.

24) 高麗醫學出版部譯：鍼灸經穴辭典，서울，高麗醫學，1989. pp.130~131.

25) 潘朝曦，張銘：簡明中國鍼灸，上海，同濟大學出版社，1989. pp.57~58.

26) 叶成亮：新編鍼灸治療手冊，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1991. p.20.

27) 呂長松：實用鍼灸學，台北，駝鈴出版社，1986. p.188.

28) 周志杰：中國鍼灸歌訣，安西，陝西科學技術出版社. p.35.

29) 崔容泰，李秀鎬：精解鍼灸學，서울，杏林書院，1974. pp.271~272.

30) 北京中醫學院：鍼灸學，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6. pp.159~160.

31) 張縉：鍼灸穴名解，台北，啓業書局，p.50.

32) 吳謙：醫宗金鑑(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pp.157~158.